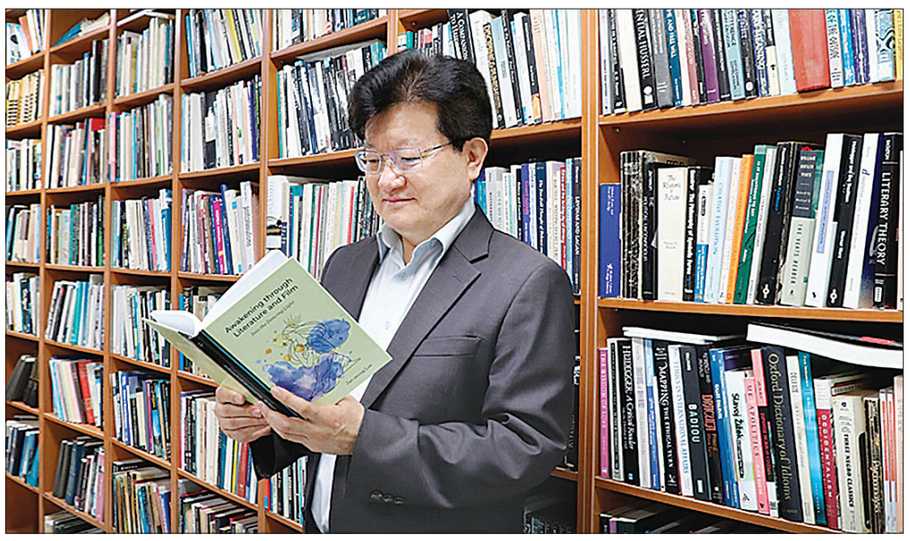
“서양 철학 추구점, 불교 內 명확히 담겼죠”

영문 불교 비평서 펴낸
이재성 부산대 교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재성 부산대 교수가 자신의 영문저서인 〈춤추는 빛 속으로〉를 읽고 있다.

영화 〈조커〉 〈기생충〉 〈1917〉과 〈햄릿〉 〈모비딕〉 등 고전문학을 선불교적 관점에서 비평한 영문 연구저서가 발간됐다.

이재성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는 최근 두 번째 영문 저서인 〈문학과 영화를 통한 깨달음: 춤추는 빛 속으로(Awakening through Literature and Film: Into the Dancing Light, 이하 춤추는 빛 속으로)〉를 영국의 캠브리지 스콜라 출판사에서 발간했다.

이 교수의 저서 〈춤추는 빛 속으로〉는 포스트모던 윤리 철학과 선불교 사상에 입각해 영화와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독자와 관객이 미적 숭고의 감각을 통해 작품이 표방하는 궁극적 현실을 만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영문학 · 영화 · 철학 · 종교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interdisciplinary) 이 책은 고전 문학과 명작 영화가 이성의 힘으로 잡을 수 없는 진리의 힘을 지니고 있음을 독자와 관객에게 보여준다.

이 교수는 미국 버팔로 뉴욕 주립대에서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를 받고, 영미문학비평 및 이론을 연구 · 교육하는 영문학자로 부산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첫 영문저작인 〈포스트모던 윤리학, 공, 그리고 문학: 동양과 서양의 만남(Postmodern Ethics, Emptiness, and Literature: Encounters between East and West)〉은 지난 2015년 미국 렉싱턴 출판사에서 출판해, 2016년 제7회 원효학술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이 교수는 미국 뉴욕에 체류 중이며, E-메일을 통해 인터뷰했다. 이하는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춤추는 빛…’ 두 번째 영문 저서
조커 · 기생충 등 선불교로 풀어
“이분법 모순 해체, 진리 이끌어”

첫 영문 저서로 원효학술상 수상
학문 · 영성 기반 문화 비평 추구

Q. 〈춤추는 빛 속으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A. 본서는 포스트모던 윤리철학, 선불교사상에 입각해 문학작품의 독자나 영화감상자가 미적 숭고(jouissance)의 감각을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를 초현상적 윤리성을 통하여 해체시키고 작품이 진정으로 가리키는 비이원적, 궁극적 현실을 일견하게 됨을 설명합니다.

초현상적 윤리성이란 즉 이원적인 이성적 생각이 이루는 양변중 하나를 택하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도덕률이나 이데올로기 등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평등성과 일체성을 중요시하는 진정한 평등과 참사랑, 진리의 초월적 영역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죠.

작품 전체, 특히 결말을 통해서 작품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고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하는 달의 위치에 있는 공, 진리가 독자 혹은 관객의 진실된 자아(참나)임이 드러나 우리가 일견하게 됨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감상법은 명상의 상태를 통하여 영적 깨달음으로 이르도록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감상법은 독자나 영화감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최종적으로 진리, 도에 대한 영적 깨달음을 맛보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는 예술성과 종교성, 대중성을 겸비한 대표적 문학과 영화 작품들을 예로 들어 직접적 분석도 했습니다.

책의 전반은 이론적 논의로 이루어지는데, 첫 챕터는 사상이나 문학이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물음과 그에 대한 긴 답을 다는 형식을 택했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의 문제를 극복하는 현재의 서양의 포스트모던 윤리학을 이루는 임마누엘 레비나스(Emmamuel Levinas),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질 들뢰즈(Gilles Deleuze), 장 뤽 낭시(Jean-Luc Nancy)등의 사유는 이미 에고(Ego)의 바깥인 무한성을 논함을 설명하고, 그러나 그들의 사유는 불교와 노장사상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함을 논합니다. 3장에서는 불교의 ‘공안’과 ‘화두’를 문학과 영화를 대하는 틀로 삼으면 그 작품들이 진리를 추구함을 느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Q. 〈조커〉 〈기생충〉 〈1917〉를 선불교적 관점에서 비평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A. 모든 문학과 영화의 명작들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삶을 해체시키는 비극성을 통하여 선과 악, 사회적 높낮이, 밝음과 어두움 등의 이원성을 허물고 초현상적 진리의 비이원성(Non-duality)으로 독자와 관객을 이끕니다. 2020년 아카데미상을 받은 〈조커〉 〈기생충〉 〈1917〉 등은 이분의 모순을 허무는 중도(中道)를 통해 진리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조커〉는 폭력이 지닌 힘을 통해 이분성의 틀을 깨고 우리로 하여금 초현상적 차원을 맛보게 하는데, 통상의 영화비평의 글이나 유튜브 영상은 이러한 진정한 예술성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완전히 미쳐버림으로 해서 폭력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님을 짚고 싶습니다. 나타나는 장면을 명상할 때와 같이 해석 없이 받아들이면 폭력성을 통하여 주인공 아서 플렉(Arthur Fleck)이 삶의 무상함에 묶여있다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을 섬세한 감성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공, 진리로 이끄는 예술적 힘입니다. 아서가 추는 춤이 인생을 자유롭게 사는 “Into the Dancing Light”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역시 양변을 이루는 상류층과 하류층의 사회적 이분을 해체하고 그 속에 섞여있는 인간성을 보여주는데, 양변이 그대로 존재하면서도 그 틀이 사라진, 이성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영역을 보여줍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면서도 그것이 다만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 그러한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Q.첫 영문저작은 어떤 내용입니까

A. 저의 첫 번째 영문저서에서는 서양의 포스트모던 윤리학과 동양의 불교, 도가의 사상에 기초해 비이원적 공에 도달하는 문학서적 독법과 영화감상법을 학문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처음 4개의 챕터에서는 서양의 포스트모던 윤리학의 최고봉인 임마누엘 레비나스, 자크 데리다, 질 들뢰즈, 장 뤽 낭시 등의 철학이 한 발 더 나아가면 나가라주나(Nāgārjuna)의 〈중론〉과 〈반야심경〉, 〈금강경〉 〈화엄경〉 등이 설파하는 중도와 전체의 진리에 다다를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후반에서는 기독교 구약성경의 일부분인 고난의 이야기인 〈욥기〉, 그리고 〈드라큘라〉, 〈프랑켄스타인〉 등 고딕소설(Gothic novel,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성행한 소설)의 강한 힘이 어떻게 우리를 진리로 향하게 하는지에 대해 논했습니다.

Q. 불교 문화 비평에 천착한 계기는

A. 서양의 형이상학과 예술이 추구하는 바가 동양의 불교와 도가사상에서 온전히 방대하게 펼쳐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부산대에 자리를 잡고서야 포스트모던 윤리학은 불교와 노장사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논의를 논문, 학회발표, 저서 등을 통하여 정립했습니다. 한국 학계는 서양의 이론들을 따라가기에 급급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법화경〉에 나오는 아버지를 몰라보는 아들의 이야기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을 위시한 서양에서 학문적 접근도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고 영적 스승들이 늘어나 우리나라로 역수입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학문을 하면서 항상 느껴온 것이 서양의 철학과 문학, 예술, 문화가 추구해온 목적은 동양의 불교와 노장사상에 방대하고도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있고 우리가 영문으로 글을 써서 서양의 학계와 대중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저의 전공분야인 영문학에서 비평이론 전공자들이 불교와 노장사상을 알고 연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전무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Q.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A. 지금 세 번째 책을 영어로 집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의 비평 연구서가 발간돼도 호응도 적고, 제작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한동안은 영문으로 저술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학문에 기초하지만 구체적이고도 긴 설명을 재미있게 하여 일반대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려고 합니다. 소수를 위한 책이 아니라 넓은 독자층에 읽힐 수 있는 책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디아샨티(Adyashanti), 루퍼트 스파이라 (Rupert Spira), 바이런 케이티(Byron Katie), 무지(Mooji) 등의 영적지도자들의 책을 학문연구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학문과 영적추구를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학문과 영적추구를 확연히 구분하지는 않고 자세한 설명으로 그 두 분야와 문학과 영화와 예술전반을 다룰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동양과 서양의 문학, 영화와 예술전체, 나아가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유와 무의 중도이자 전체, 비이원성의 무한한 진리임을 강조하려 합니다.

“식민사학 논리 벗어난 가야사 바른 연구 필요”

이덕일 소장 가야문화 학술대회서
가야불교 전래시기 재검토 필요해

“식민사학은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후 조직적으로 만들어 퍼뜨린 역사 논리입니다. 가야사는 식민사학에서 벗어나 바른 사료로 접근해 새롭게 연구되어야 합니다”

7월 4일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사단법인 인도학회, 동명대 인도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6회 가야문화의 원형탐색과 콘텐츠화’가 경남 김해 인제대 인정관에서 열렸다. 〈사진〉

이 자리에서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강단사학계에서 인식하는 가야불교 전래시기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기존 가야사 연구는 식민사학의 큰 틀 내에 인식 됐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일반 국민들은 가야가 서기 42년에 건국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후한(後漢)의 세조(世祖) 광무제(光武帝) 건무(建武) 18년 임인(서기 42) 3월에 건국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도 수로왕이 서기 42년에 건국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역사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한국의 거의 모든 대학 강단을 차지하고 있는 강단사학자들은 이 기사를 믿지 않는다. 그들의 견해는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도 알 수 있는데 서론과 본문 설명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다. 일반 국민들은 가야가 서기 1세기 건국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3세기 이후에 건국되었다고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역사학의 기본 방법론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식민사학의 영향에서 벗어나 바른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학술대회는 △불전문학 속에서의 해상교류와 불교전파(정덕 스님, 동국대) △붓다빠다(Buddhapada)로 본 해양불교의 신화적 전래(법진 스님, 동국대) △가락고찰 부암의 사료적 연구(지원 스님, 부은사) △구지가의 남방 연원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강형철, 동국대) △제천금인과 가야불교 소고(김민수, 에세이능력계발원)가 발표됐다.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송산 스님은 “유래 없는 코로나 정국으로 모두가 위축되어 있는 시기에 제6회 가야문화의 원형탐색과 콘텐츠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가야문화의 새로운 발굴과 가야 역사의 바른 정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연구해 주신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모여 바른 역사관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나만의 솔루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ANTI-BACTERIAL · DEODORIZATION · 항균&소취
FDA 등록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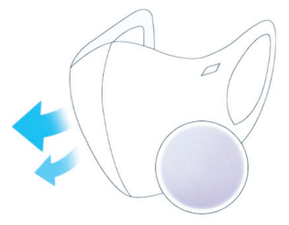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청량한 색상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연회색, 블랙** 5색에 **연꽃문양**이 아름답게 인쇄된 여름용 **Cool~ 마스크**

자외선 차단 및 빠른 건조기능으로 야외활동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된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기존제품과 다른점
1 바깥면의 발수기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
2 이중 압축으로 기존제품보다 얇음
3 냉감(시원함 정도)이 우수하여 무더운 날씨에 적합

※ 여름용 마스크는 색상별로 최소주문수량 100개로 개당 판매가는 3,500원입니다.
※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주문제작상품으로 5~7일정도 소요됩니다.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